

안 전 사 용 계 획

'86농약안전사용 추진계획 확정

홍보확대 ·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에 주력 전문교육 실시하고 유통농약 단속강화

농수산부는 올해 농약안전 사용 추진의 기본방침을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강화, 농약중독방지 및 해독제의 지속공급, 농작물 피해방지 및 약효증진을 위한 농가지도 실천, 유통농약의 단속강화, 농약과대선전규제강화에 두고 국가 식량증산목표를 달성하며 농약사용자와 국민건강을 보호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행정·지도·농협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인데 항목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강화·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동계영농 교육시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농약의 적정사용방법, 농약 중독방지 및 해독, 농촌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고 새마을 영농회장, 방제단장, 독농가 등 5만여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20여명의 병충해 발생예찰요원의 특별교육도 2월부터 실시된다.

농약 안전사용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농약 사용지침서 5만부를 비롯 각종 표어·포스터·전단 등을 농약사용 시기에 맞추어 제작 배부 하게된다.

농약판매자 및 공직자 자질향상·2,800여명의 농약 시중 판매업자와 830여명의 농협

농약 판매요원에 대해 농약 안전사용 요령과 병충해방제 및 농약선택방법 등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 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 300여명에게는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서 농약관리제도, 농약의 작용기작 및 약효, 약해의 특징, 농약의 안전사용과 작류성 및 신농약개발방향등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서는 전국 주요 시·군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지침및 처리요령 등을 중점 교육하여 불량·부정 농약의 유통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약중독방지·행정 및 지도공무원이 농약살포 시기에 현지를 방문 방제복·마스크 착용, 고농기, 고농도·장시간 살포금지, 노약자 살포작업금지 및 고독성 농약의 수도용 사용금지를 지도하고 5천 8백여벌의 방제복을 공급하게되며 해독제는 80만정을 공급, 단위조합·영농회장은 항상 비축토록하며 시판업소는 30정 이상 자체구입하여

비축함으로써 농약중독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농작물 피해 및 약효저하 방지·농촌지도기관을 통하여 영농기중에 적용대상작물 및 적기사용준수, 제초제사용법 준수, 특수 비료와 양잠 및 양봉지대 농약안전사용 지도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는잡업·양봉지대를 설정, 살포 농약의 종류, 살포시간 조정 및 농가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며 농약에 관한 인식부족 농가나 상습피해 농가 등을 조사, 대장을 비치하고 개별방문을 통한 지도계몽도 실시 된다.

유통농약의 단속강화·국립농업자재 검사소 및 각 시·도는 유통농약의 연중단속을 실시 1,500여점의 시료를 발취분석하며 무고시 농약의 밀조자(密造者)·상습 판매자는 근절시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약효 보증기간·유예기간 경과 농약의 회수에도 철저를 꾀한다.

또한 등록된지 5년이상된 주요 농약에 대한 생물학적 검사를 강화하여 약효불량품

목 및 인축유해(人蓄有害) 품목중 개선 불가능 품목은 등록을 취소시키게 된다.

농약의 과대선전규제 • 농약에 관한 전단, 팜플렛 등 각종 선전문을 제작할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심의를 실시, 과대광고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원제 회사 및 원제공급처의 광고는 반드시 대상제품 농약 제조회사에서 책임지고 실시토록해 농약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에 농약안전사용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여 농약의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사용방법 등 시범연시하여 주위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농약 소비자 보호 • 금년 1월 1일부터 전유통 농약에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재고 이월분 농약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가격을 표시하여 부당 가격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시·도에서는 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약라벨의 접착도 향상을

위한 검사도 강화하여 접착제 종류별 접착성 조사 및 내수성(耐水性)을 검사하여 부착력이 약한 접착제는 강력풀로 대체토록하며 벼 생육 후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벼멸구 방제용 신농약 개발에 대한 연구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 •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농업 식량기구(FAO) 기준에 의거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확대고시하여 잔류성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과채류 재배 단지를 선정, 농약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보사부(保社部)와 협의하여 농약 잔류 최대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환경오염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농약 빈병수집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수집장 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안전성이 확인되는 품목은 그 용기를 PET병으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